

두산중공업 재무구조개선 위해 대주주, 퓨얼셀 지분 6000억 증여

주식 1276만주, 6063억원 가치
내달 유상증자... 재무구조 제고
“두 회사 사업 시너지 효과 예상”



두산타워

㉠두산 대주주들이 두산중공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두산퓨얼셀 지분을 무상 증여했다.

두산퓨얼셀은 26일 공시를 통해 ㉠두산 특수 관계인들의 지분 23%를 두산중공업에 무상 증여했다고 밝혔다.

증여된 주식은 1276만3557주로, 25일 종가 기준 6063억원 가치를 갖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퓨얼셀 지분을 확충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하게 됐다. 오는 12월 유상증자를 완료하면서 재무구조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두산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이 이번 지분 수증을 통해 두산퓨얼셀의 최대 주주가 됨으로써 두 회사의 사업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두산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퓨얼셀은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장에서 독보적인 업체로, 국내 최초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을 비롯해 그린수소 생산, 수소터빈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퓨얼셀 연료전지 발전 기술을 확보하면서 친환경 발전 기술 라인업을 구축하고, 두산퓨얼셀은 두산중공업 EPC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로 시장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두산 관계자는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을 위한 기반을 계획한 대로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두산퓨얼셀 지분 무상증여를 약속대로 이행한 것처럼 남은 재무구조 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은행 신용대출 금리 현황〉

(단위: %)/자료=은행연합회

구분	9월	10월	차이
BNK경남은행	4.62	4.62	0.00
BNK부산은행	2.79	2.85	0.06
DGB대구은행	4.01	4.18	0.17
광주은행	3.64	4.60	0.96
전북은행	6.42	6.48	0.06
전체 평균	4.30	4.55	0.25

지방은행도 금리인상 속도 풍선효과 차단, 대출 옥죄다

지방은행 5곳 평균금리 4.55%
지난달 4.30%서 0.25% 올라

정부의 강화된 신용대출 규제(오는 30일부터 시행)에 앞서 대형 시중은행에서 선제적으로 대출을 제한한데 이어 지방은행도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에서 충족하지 못한 수요가 지방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지방은행 BNK부산·경남·DGB대구·JB광주·전북 등 5곳에서 지난 10월 실행한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55%로 집계됐다. 이는 4.30%였던 전월 평균 신용대출금리에서 0.2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앞서 7~9월에는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하락했던 것과는 달리 오름세도 돌아선 것이다.

은행별로는 광주은행 0.96%포인트, DGB대구은행이 0.17%포인트, 전북은행·BNK부산은행이 각각 0.06%포인트 올랐다. 유일하게 BNK경남은행은 전월 평균금리와 동일했다. 지난 10월 대출 평균금리는 전북(6.48%), BNK경남(4.62%), 광주(4.6%), DGB대구(4.18%), BNK부산(2.85%)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평균금리가 가장 높게 상승한 광주은행은 신용등급별로는 금리가 오히려 떨어진 등급도 있었다. 그러나 금

리를 높인 ‘1~2등급’(+0.34%), ‘5~6등급’(+0.1%)에서 크게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는 원가가 되는 기준금리와 마진이 붙는 가산금리 등을 더해 산정되는데, 한 달간 기준금리가 하락한 경우라도 있는 반면 가산금리를 적게는 2bp(1bp=0.01%포인트)에서 많게는 68bp까지 높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금융권 대출 자제를 요청하면서 지방은행들 역시 대출 금리 인상으로 수요 억제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유는 시중은행에서 못 빌린 돈을 지방은행에서 충당하려는 수요를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다. 대출 억제책이 발표된 지난 13일 이후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가 지방은행으로 몰렸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부분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특히 지난 규제 발표(13일) 이후로 신용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특히 지방은행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 신용대출 상품의 최저금리는 지난달에는 연 1.9~2.8% 수준에서 최근에는 연 2%중반에서 연 3%초반으로 올라간 상황이다.

또 다른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에 비하면 지방은행이 담당하는 신용대출액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당국에서 신용대출 규제 등의 시그널에 따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석 기자 ysl@

Digital **한류**를 선도하는 대학 서울문화예술대학교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정시 1차 | 2020.12.01(화)~2021.01.15(금)
정시 2차 | 2021.01.28(목)~2021.02.16(화)

미래문화예술계열

- 연극영화 / 도탈미용예술
- 사회체육 / 실용음악
- 건축공학 / 모델
- 시각영상디자인 / 실버문화경영
- 한국어교육 / 반려동물
- 조리 / 항공정비
- 항공서비스 / 항공보안

인서울 4년제 문화예술특성화 대학 대면/비대면 혼합교육

FUN 하게 배우고 FUN 하게 졸업하자!

지루할 틈이 없다!
시간가는줄 모르는 FUN한 수업이 있는 학교!



모델학과 19학번 남윤수
2020년 NETFLIX
<인간수업> 기태 역
tvN <언어의 온도>
이찬술 역

코로나 피해 채무자 내년 6월까지 ‘상환유예’

금감원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연장
금융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최대 1년’
3곳 이상 금융사 채무자, 신용위에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내년 6월까지 지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서 거절하거나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회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 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적용되면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지난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 대출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또 월 소득중 가계생계비(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금융회사의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하고, 연체발생직전부터 3개월 미만 단기연체만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

독자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메트로미디어가 ‘빅데이터를 품은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과 웨비나로 진행한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음성 송출이 원활치 않아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전체 동영상은 유튜브 웹사이트(https://youtu.be/ivlrBmFf-G0)에 올라 있습니다.

지하철 3호선 홍제 서울문화예술대역 3번 출구 3분 거리

문의전화 1588-7101 / 02-2287-0253~4,0373 홈페이지 ipsi.scau.ac.kr